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의 해안개척에 관한 연구

문 병 채 · 정 인 철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전남대 대학원 GIS학과 석사과정)

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문화 및 경제권 형성은 자연경관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것은 자연경관이 주민생활의 터전을 제공함과 동시에 또한 여러 제약성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 서남해 도서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한 해면개척으로 인해 심한 경관변화를 겪어왔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섬들 사이에는 염생습지가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염생습지는 도서민에게 경지확장의 좋은 장소가 되었다. 개척민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향하여 차례로 방조제를 축조하여 경지를 확대해 나갔다. 사실 서남해 지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灣)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서는 주민들도 그 연대를 알지 못하는 오래된 방조제가 축조되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곳을 많이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만에 연속적으로 펼쳐져 있는 개척의 역사는 서남해 도서의 촌락의 역사이고 인간에 의한 지표변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문중, 1972).

이들의 해면개척에 대한 필연성은 도서 특유의 한정된 토지자원과 경작규모의 영세성이라는 환경적·경제적 요인,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한 식량 유입의 어려움, 그리고 어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농경사회로의 갈구 등 사회문화적 정서와 맥락 등이 같이 하여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저습지 발달은 영산강이라는 큰 하구의 활발한 퇴적물 유입, 황해 연안수에 의한 활발한 조류활동, 침강작용에 의한 리아스식 해안 형성과 낮은 수심 등과 같은 이 지역의 자연환경적 조건도 함께 작용했으리란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 사이에 발달한 저습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우 활발한 매립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약 8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간척활동은 우리나라 최대의 해만 개척사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은 옛날의 원지형을 크게 변화시켰다. 현재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은 100년 전만 해도 60-70%가 바다였다. 그리고 적어도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업인구가 많았으리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끊임없는 개척활동은 도서민의 주민성 그리고 지역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실제로 거대한 토목공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많은 설화와 민담, 전설들이 형성되고 공동체적 삶의 형성을 읽어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거에 비해 심한 지형변화와 주민생업 및 활용공간 등의 엄청난 차이는 오늘날 도서문화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도서 민속학의 경우 그 뿌리의 근원, 형성과정, 그리고 변화과정을 파악하는데 역부족이었으며, 고대 해양교류사를 연구하는데도 섬들 간의 연계, 상대적 세력규모, 지리적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거의 개척과정에 따른 해안선의 모양과 제 도서들의 확장 과정상의 상대적 지세크기 등에 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과거의 해안경관을 복구하여 이를 지도화 함으로써 당시의 도서별 면적, 경작 가능지, 해안선 모양, 연안해의 생태적 환경 및 조건 등을 파악하고, 이를 해석하여 당시 도서의 자연경관에 따른 주거환경, 생업조건 등과 섬들 간의 세력관계, 교역관계, 문화권 경계등을 논의해 봄으로써 오늘날 도서문화의 근원과 형성 및 변화과정을 밝혀 그 정체성을 찾는 데 연구의 목표를 두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연구되었다. 첫째 오늘날 도서문화의 근원과 형성 및 변화과정을 밝히는 데는 시대사적 고찰이 필요함을 느끼고 해면개척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각 시대별 변수설정을 위해 정치적 배경 파악과 함께 각종 사료의 분석·정리 작업이 행해졌으며, 각 시점별 결과에 대한 문화적 관점에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기별 지형변화가 연구되었다. 당시의 실질적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지도화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면적, 해안선 길이, 간척지 면적 등 제반 사항을 통계적으로 산출했다.

또한, 삶의 방식을 협소한 농경지와 해양자원 두 가지를 이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적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풀기 위해 환경·생태적 여건 차이의 규명과 생업을 연계시켜 해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방법은 전반적으로 귀납적 접근법에 의해 기초자료의 철저하고 정확한 분석 속에서 하나 하나 개념을 정리해 가는 기법이 동원되었는데,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열거하며 다음과 같다.

간척을 통한 환경개조는 오랜 시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가 길다.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간척지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많지 않다. 따라서 과거 지형을 복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빈약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여 지도화 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존의 연구성과를 검토하였다. 기존연구 검토는 역사학과 지리학계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논문들의 분석하였고, 둘째 고문헌과 고지도, 그리고 여러 시기의 현대의 지형도를 비교·연구하여 과거의 지형을 찾았으며, 셋째 고정밀(1m 공간해상력) 3차원 위성영상자료를 가지고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해안선 복원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작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섬들을 수차 답사하면서 간척과 관계 있는 유적과 유물 즉, 방조제 및 수문, 절토와 성토지, 관개시설, 주거지와 우물, 토지이용 등을 살피고, 주민들로부터 지명의 유래, 농법, 자연재해, 주거이동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매핑작업을 수정 보완했다.

지도제작은 의미 있는 역사의 5개 시점을 설정하고(17C 이전, 1930, 1960, 현 지형), 각 시기별로 특성과 변화요인을 추적한 후 그 내용에 기초하여 시점별 지형형상을 시물레이션 해냈다. 이 때 사용된 기술은 전적으로 역시 GIS를 활용하였다. 지도제작 및 공간분석에는 Window 2000환경에서 Arc/Info 8.0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국가 기본도인

1/25,000과 1/5,000 수치지형도가 사용되었고, 여기에 디지털이 된 방조제대장 자료를 조합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고지도와 위성영상 등을 참고자료로 삼아 왜곡되고 누락된 대장자료를 수정·보완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위성영상은 현재 가장 정밀도가 높은 상업용인 Space Imaging사의 IKONOS 영상을 활용했다.

2. 기존연구 검토

1970년대부터 역사학계와 지리학계에서 해안저습지 개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의해 많은 연구 업적이 축적되었다(사학계의 논문으로는 이경식, 1973 ; 이태진, 1983 ; 송찬섭, 1985, 그리고 지리학계의 연구논문은 권혁재, 1974 ; 반응부, 1977 ; 남궁본, 1983).

역사학계의 관심은 주로 조선시대의 농지개간에 집중된 반면 지리학계에서는 주로 간석지의 지형적 특성과 간척촌의 발달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들 연구는 이 글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기존의 논문들 가운데 사학계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문헌에 의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지역성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리학계의 논문들은 지형학적(地形學的) 측면에서 간석지 및 간척평야를 연구한 것과 호남평야 일대의 간척촌을 연구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최영준, 1997: 177~178), 이들 역시 너무 지형학적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도 한계가 있는 방안법과 같은 기법을 사용한 것은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에 의해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대표적인 연구는 지리학계 쪽으로는 강화지역의 해안저습지 간척과 경관의 변화(최영준, 2000: 175~227), 인간에 의한 지표의 변화-태안반도의 임야개척과 해안개척(최운식 외, 2000: 392~409), 영산강 주변의 간석지 개척과정과 경관변화(김경수, 1999: 73~94)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역사학계 쪽으로는 일제하 간척농지 확충을 통한 공동체적 자원이용방식(선영란, 1998: 145~180)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연구방법론에서 기존의 방법을 탈피하지 못하고 종이 위에 수작업으로 지도 혹은 도면화 한 결과 많은 오차와 누락을 가져와 그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이들에 의해 주로 사용된 방법은 방안법 이었다(최운식 외, 2000: 402). 방안법은 발행시기가 다른 두 지형도의 각 해안선을 그리고 이를 서로 겹쳐서 그 변화를 비교하고, 해안선의 변화가 특히 심한 곳의 지형을 판독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염전용과 농업용으로 분류하고, 간척된 면적을 방안법에 의하여 계산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통계치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지도중첩과 같은 다양한 공간분석에 한계를 드러냈으며 다양한 소스의 여러 지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3. 서남해 지역의 지형·지질적 여건

전남 서남부 해역은 신안군을 중심으로 하여 총 829개의 유무인도로 구성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도서군으로서 전국 최대면적(432km²)의 갯벌생태자원과 천혜의 비경을 가진 자연사적 보고의 토대위에 육지와 격리된 오랜 섬 특유의 민속문화가 도서별로 다양하게 살아있다. 잘 발달된 해식동굴이나 해저동굴, 깎아 내리는 듯한 기암절벽, 시루떡판을 쌓아 놓 듯한 퇴적층, 그리고 이들이 이루어내고 있는 섬과 섬과의 조화 등이 수 억 년 동안 간직해 온 지질학적 신비 등과 함께 천혜의 자연경관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서남해 도서의 지질은 거의 모두 화산암과 화산쇄설암으로 구성되어 있다(전남도, 1999: 218). 특히, 화산쇄설암 중 응회암이라는 암석으로 대부분 형성되었으며, 형성시기는 약 8,9천만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별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암태도는 이름이 그러하듯이 화산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말기에 이들 화산암 및 응회암 층을 뚫고 관입한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로 형성되었으며, 홍도는 구성 암석뿐만 아니라 형성시기를 달리한다. 대부분이 붉은 색의 규암과 규암질 사암으로 이루어졌으며, 형성시기가 아직 정확하지가 않으나 고생대 초인 약 5, 6억년전에 형성되었다는 설도 있고 그 이전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아무튼 3억년 이상 오래된 암석인 것은 사실이다(전남도, 1999: 219).

또한, 해안의 퇴적층을 보면 크게 둘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면봉적퇴적층이고 다른 하나는 해성퇴적층이다. 사면봉적퇴적층은 주위의 산으로부터 침식되어 떨어져 나온 암편들이 부식되면서 토양화 과정을 거친 흙이 해안선 가까이까지 흘러 내려와 쌓인 퇴적물이고, 해성퇴적물은 파도에 의해 해안지형 들이 침식되었거나 해류나 조류에 의해 운반되어 온 퇴적물들이 해저에 쌓여 형성된 퇴적물들이다. 또한 해성퇴적물은 그 구성성분에 따라 다시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점토성 퇴적물이고 다른 하나는 사질성 퇴적물이다. 그 분포 특성을 보면, 점토질은 주로 내해(內海)에 있는 여러 도서들의 천해(淺海)에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질성 퇴적지는 외해(外海)에 접해있는 섬들의 북서해안에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외해 도서의 북서해안은 심해(深海)를 이루고 있고, 만(灣)이 형성된 곳에는 사질성 퇴적인 사빈(沙濱)이 가파른 경사를 이루며 심해에까지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들 생성이 해수면 변동과정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수면 변동은 후기빙신세 마지막으로 추었던 시기인 19,000~15,000년 전에 연속(連陸)된 후 14,000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해수면 상승과 함께 현재와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이헌중, 1998: 38).

4. 해안개척과 지역문화에의 영향

1) 개척사적 특성

도서 해안의 개척사업은 한정된 토지자원을 보다 더 충실히 이용하려는 노력을 다음과 두 가지 면에서 경주했다고 보여진다. 하나는 생산기술이나 생산조직의 향상을 통한 소프트웨어적인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계단식 경지조성이나 간척사업 등과 같은 인위적 자연개조로 나타나는 하드웨어적 시도이다. 이들은 동시에 혹은 간척사업을 이룬 후에 완속담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집약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과 정교한 기술 투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수반되었다(선영란, 1998: 174).

따라서 가장 기반을 이루는 개척작업은 우선 토지를 확보하는 일이었다고 보여지며,

방조제 축조를 통한 간척사업으로 추진된 해안개척의 역사는 실로 오랜 옛날로부터 이어져왔다. 한국 서남해 도서지역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인간이 거주하였다는 유물이 발견되고 있지만, 경지의 개척과 촌락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후기 장보고의 대중항로 개척과 때를 같이 하지 않는가 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간척사업은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인 고려 고종 35년(1248)에 병마판관 김방경이 안주의 갈대섬에 제언을 축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후 몽고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에 피난해 있던 고종 43년(1256)에 강화의 제포, 와포, 초포, 이포 등에 제언을 축조하여 군량미와 백성들의 식량을 조달하였던 것이 사실 우리나라 해면개척의 시작이 아닌가 한다(최운식 외, 2000: 400).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태조에서 성종에 이르는 약 100년 간은 국력의 강화와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치수와 수리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인조에서 정조에 이르는 160년 간은 조선시대 치수사업의 부흥기였다(김의원, 1985: pp. 47~56). 특히, 왜구의 침입이 없어지고 임자·병자의 양대전란을 겪고 난 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농업경제에 의존하고 있던 당시의 정부로서는 황폐화된 경지를 복구하여 농경지를 확대시키고 농민을 안주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였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양전사업(量田事業)과 개간사업(開墾事業)이었다. 정부의 개간정책은 크게 두 가지

[표 4] 개척시기별 면적

시기 구분	개척 면적(km ²)
1900~1930	28,807
1930~1960	40,264
1960~1980	37,637
1980 이후	787

방향에서 추진되었다(신호철, 1981: 62~63). 하나는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에게 「소유권」 또는 「경작권」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개간된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 혹은 감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개척 장려는 전남 서남해 도서지역의 해면개척에도 일치되어 진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의 대상지역인 신안 지역의 해면개척에 관한 기록은 이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의 最古 방조제는 신안군 팔금면 장목부락 뒤편에 있는 「장목방조제」로 1728년에 축조되었으며 총연장이 약 150m에 달하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간척사업에 관한 법령·제도 등이 마련되고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07년 공포된 「國有未開墾地利用法」과 1920~1939년 「朝鮮産米増産計劃」의 일환으로 마련된 간척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따른 정책적 지원¹⁾에 힘입어 해방 전까지 34.43km²(현재 신안군 총면적의 약 4.7%, 해면개척으로 조성된 면적의 총 19.70%)가 논으로 조성되었다. 일제시대에는 비록 식민지 수탈이 목적이기는 하였지만 일본자본의 상륙, 수리사업의 개선, 산미증산계획 등에 촉진되어 해면개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1950년대 초까지는 경제적 불황과 국가의 재정난 등으로 신규사업보다는 일본인에 의해 착수되었던 미완공지구의 준공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1953년

1) 공유수면매립법(1921)과 조선공유수면매립령(1923)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공사비의 30~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한편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앞선해 주었으며, 간척 농지에 경작자들이 이주 정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주자 1호당 50엔 이내의 보조금까지 교부하였다.

부터는 UNKRA, FAO 등의 회원에 힘입어 간척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민간 차원의 소규모적 간척사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공업화의 전개와 함께 대국토건설을 지향했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으로 간척사업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무상지원양곡(PL480)이 지원됨에 따라 「간척법」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1971년부터는 무상지원양곡이 중단된 데다가 국가의 경제정책 또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민간차원으로 추진되던 간척사업도 국가주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용도 또한 식량증산을 위한 간척사업보다는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었다(최운식, 2000: 401).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간척기술의 혁신적 발달에 힘입어 영산강 하구언 조성 등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대단위 농경지 및 공업용지 조성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래 [표 2] 는 해면개척 역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0~60년대에 가장 활발한 고조기를 보이고 있으며, 8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정부정책과 갯벌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표 5] 행정구역별 해면개척과정 현황(단위:km)

	1929 이전	1930 ~ 1939	1940 ~ 1949	1950 ~ 1959	1960 ~ 1969	1970 ~ 1979	1980 ~ 현재	합계	전체 면적	비율 (%)
지도읍	8	5	0	6	10			29	85	34
증도면	4		0	6	3	0		14	40	34
임자면	6		1	2	1		0	9	57	15
자은면	6	0	1	0	2			8	60	13
비금면	12	1		3	0			17	60	28
도초면	12	1	2	1				16	63	25
하의면	5	1	1	0	0		1	8	40	19
신의면	4	0	3		0	3	1	11	38	28
장산면	4	0	0	0	3			8	34	23
안좌면	8	1	0	2	3	7		21	67	32
팔금면	5		1	0	1	0		7	21	34
암태면	10			0				9	49	18
압해면	12	1	1	2	1	3		20	75	27
흑산면	0	0	0	0	0	0	0	0	0	0
합 계	97	9	9	23	24	14	1	175	754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전남 신안군 일대를 영역으로 하고 있는 한국 서남해 도서 지역의 해면개척도 역시 우리나라 해면개척의 역사와 대체로 맥을 같이 해서 진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육지에서 개척사업이 고조된 시기에는 도서지역에서도 똑같이 고조되던 시기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간척 초기부터 완속답을 만들기 위한 주민들의 집약적이고 지속적인 노동과 정교한 기술이 투여되었음(선영란, 1998: 174)을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두 작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농지조성이 되어왔다.

2) 자연경관의 변화

장부상에 나타난 표의 분석에 의존한 사적 고찰만으로는 생생한 해안개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형도 작업을 통해 해안선의 변화와 간척지 확대를 실질적인 면에서 살펴보고 이들을 지역문화 배경과 관련지어 보도록 한다.

[표 3] 에서 보면, 17세기 이전(구체적으로 1728년 이전)의 해안선은 총 2,411km이었으나 현재(2000년 12월 31일)는 1,758km로 나타나고 있어 무려 653km(27%)나 단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남해 도서지역에 있어서 인위적 해안개척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사실을 실감 있게 나타내 준 결과라 하겠다. [지도 1] ~ [지도 4] 는 이를 구체적인 지도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도(map)은 GIS를 이용하여 모든 방조제 데이터를 그려 넣어 제작된 것이다. 특히 서남해 도서 중에서 지도, 안좌, 압해 등지에서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암태, 장산, 팔금 등에서는 개발이 보다 덜 활발하였다. 또한, 특히 할만한 사실은 원해(遠海)에 있는 흑산도의 경우 단 한 건의 간척사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고대의 지형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면적에 있어서 역시 큰 변화를 볼 수 있다. [표 4] 에서 보면, 해안선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지도, 안좌, 압해의 순으로 큰 증가를 보이고 있고, 팔금, 장산, 하의, 암태, 임자 등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17 세기까지는 흑산이 한국 서남 해역에서는 가장 큰 섬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지도와 압해 순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지도, 압해, 안좌, 그리고 흑산의 순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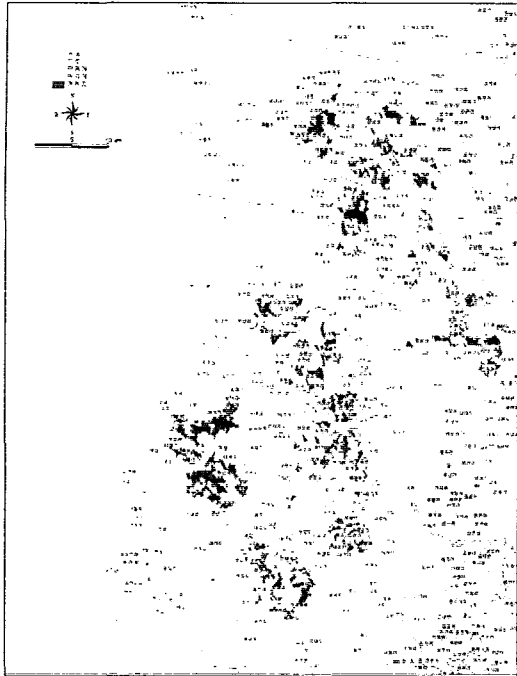
[표 6] 개척과 해안선 변화(km)

구분 구역	17C 이전	현재	단축
지도읍	242	167	75
중도면	166	120	46
임자면	176	144	32
자은면	126	86	40
비금면	178	139	39
도초면	181	122	59
하의면	172	129	43
신의면	122	93	29
장산면	128	89	39
안좌면	202	126	74
팔금면	84	52	32
암태면	134	105	29
압해면	289	174	115
흑산면	212	212	0
합 계	2411	1758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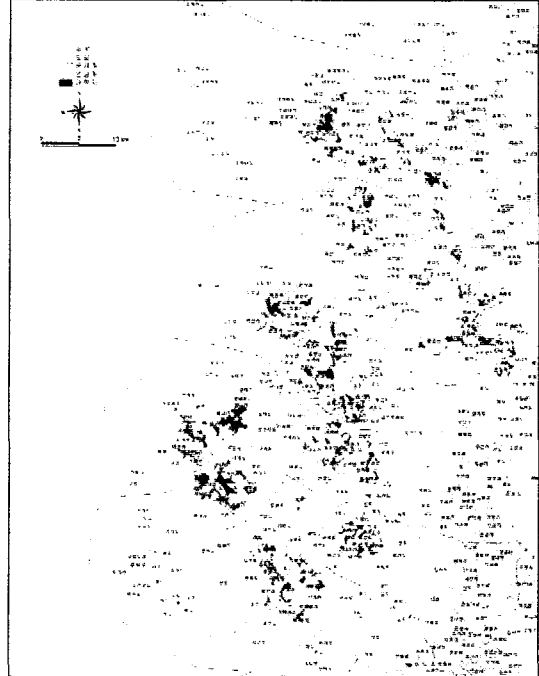
[표 7] 해면개척과 면적 변화(km)

구분 구역	17C 이전	현재	증가
지도읍	56	85	29
중도면	26	40	14
임자면	47	56	9
자은면	43	60	17
비금면	43	59	16
도초면	47	63	16
하의면	32	40	8
신의면	27	38	11
장산면	26	34	8
안좌면	46	67	21
팔금면	14	21	7
암태면	40	49	9
압해면	55	75	20
흑산면	64	64	0
합 계	566	751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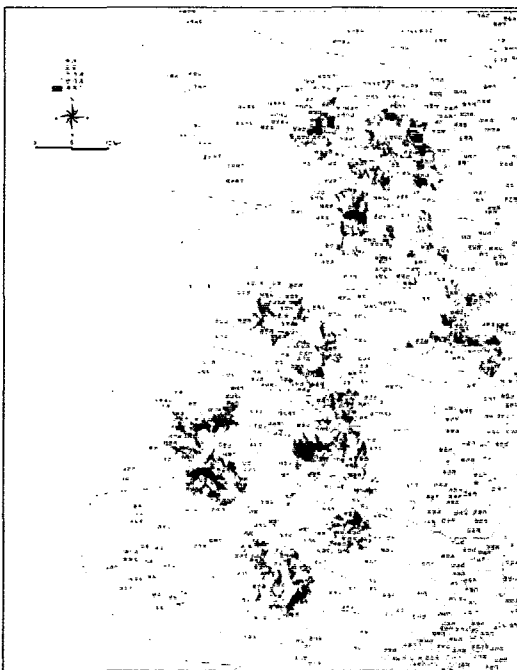
[그림 2] 1960년의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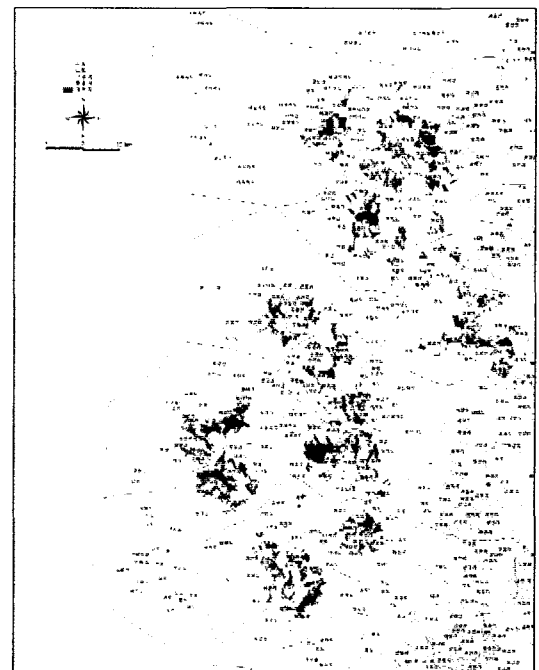
[그림 1] 1930년의 지형



[그림 12] 1980년의 지형



[그림 13] 2000년의 지형



3) 지역문화에의 영향

위와 같은 지형경관이 변화로 우리는 쉽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위에 분석된 시기별 면적이 과거 제작된 고지도상에 표기된 섬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고지도상에 표현되어진 섬들의 명칭이 당시의 면적크기에 따라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고지도상의 상대적 면적 또한 매우 흡사하다. 둘째 괄목할 만한 사실은 흑산의 성곽을 이에 대비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17C까지는 흑산이 이 지역 최대의 면적을 가진 섬이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흑산이 거주공간으로나 위치적으로나 중심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형적 위치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지형적 변화에 기초하여 흑산을 비롯한 제 도서들의 지역문화 성쇠(盛衰)를 연결 지워 설명하면, 서남해 해양문화의 중심지가 흑산을 중심으로 18C까지 이루어지다가 조선 후기에 들면서부터 간척에 매력이 없는 흑산은 원근해와의 교역지 그리고 어업으로서의 중심지적 기능이 더욱 강화된 반면, 임자와 압해는 육지와 연결해있는 특성과 광대한 개척 가능으로 섬 농업문화의 새 장을 열어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들 내해에 있는 도서문화는 상대적으로 육지의 많은 인구유입과 함께 내륙 민속문화가 도서 특유의 것과 융합하여 새로운 모습의 양상으로 변화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섬의 역사는 개척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역사상 수많은 개척 사업이 행해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초기 해안선의 심한 변화와 광대한 토지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는 심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 어장의 변화와 상실로 이어졌으며, 인문환경적으로는 어업 위주의 생업활동이 농경 위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편으로는 주거공간의 확대와 지역문화 통합이라는 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5. 결 론

인간은 환경이 주는 제약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 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영속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도서지역 주민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축적되면 그 때마다 곧 바로 한정된 토지자원 확충에 그 여력을 쏟는 작업의 연속이 도서민의 삶의 역사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도서지역의 특유의 한정된 토지자원과 경작규모의 영세성이라는 환경적·경제적 요인과 어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농경사회로의 갈구 등 사회·문화적인 지역민의 특성과 맥락을 같이하여 보다 활발한 바다로의 개척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위에서 우리는 보아왔다.

요약하면 앞서서도 제시했지만, 본 연구는 과거의 개척과정에 따른 주요 시기별 해안선의 모양과 면적, 경작 가능지, 연안해의 생태적 환경 및 조건 등을 지도화 함과 동시에 논의된 주거환경, 생업조건, 도서간 세력 및 교역관계, 지역문화 경계등에 관한 내용들은 오늘날 도서문화의 근원과 형성 및 변화과정을 밝혀 그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저자의 문화지식 빈약으로 공간의 다양성이 문화와 어떻게 관계되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는 어떻게 보면 문화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변화 만으로 종합적인 문화를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도서 주민들의 생활이 협소한 농경지와 해양자원 두 가지를 이용하는 상호보완적인 적응전략으로 삶을 꾸려왔음(선영란, 1998: 150)과 제문화의 원천과 형성이 개척역사의 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의 논거(論據)를 밝힐 수 있는 실증적 연구의 하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 고 문 헌

1. 권혁재, 1975, “호남평야의 충적지형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지리학」 12, pp. 1~20.
2. ----, 1974, “황해안의 간석지 발달과 그 퇴적물의 기원”, 「지리학」 10, pp. 1~12.
3. 김경수, 1999, “영산강 주변 간석지 개척과정과 경관변화”, 「문화역사지리」 11, pp. 73~94.
3. 김의원, 1985, 「국토이력서」, 매일경제신문사, 서울.
4. 남궁본, 1990, “천방과 보창배미 개간”, 「문화역사지리」 2, pp. 1~17.
5. ----, 1983, “동진강 하구 간척촌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10, pp. 197~212쪽.
6. 반응부, 1977, “인천해안의 mnd-flat 지형연구”, 「지리학연구」 3, pp. 227~40쪽.
7. 선영란, 1998, “일제하 간척농지 확충을 통한 공동체적 자원이용방식 - 전남 완도 신농장과 정도신농조합의 사례 -”,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16, pp. 145~180.
8. 송찬섭, 1985, “17·8세기 신전개간의 확대와 경영형태”, 「한국사론」 12, pp. 231~304.
9. 신호철, 1981, “조선 후기 화전의 확산에 대하여”, 「역사학보」 91, pp. 62~63.
10. 이경식, 1973, “17세기 농지개간과 지주제의 전개”, 「한국사연구」 9, pp. 88~125.
11. 이문중, 1972, “한강의 홍수와 그에 대한 적응유형에 관한 연구”, 「지리학」 7, pp. 24~39.
12. 이태진, 1979, “14·5세기 농업기술의 발달과 신흥사족”, 「동양학」 9, pp. 327~46.
13. ----, 1983, “16세기 연해지역의 어전개발”, 「김철준박사 화갑기념사학논총」, pp. 419~48쪽.
14. 이현중, 1998, “완도의 선사유적과 유물”,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도서문화」 16, pp. 37~61.
14. 전남도, 1999, 「전남 도서 해안지역 지질환경연구」, 광주.
15. 최운식 외, 「정보화 시대의 국토와 환경」, 법문사, 서울.